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5년 12월 23일 · 제337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인도, 이란 제재완화에 대비 이란 인프라 투자 서둘러
2. CMA CGM, 싱가포르 NOL 인수 추진 상황
3. 중국-유럽간 컨테이너 철도운송 증가세
4. CMHI & 컨소시엄, 터키 Kumport 터미널 지분 인수

| 물류시장동향 |

1. 무르만스크 수산항社, Kupets社에 10억 26백만 루블에 매각
2.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 공지사항 |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물류정책 · 사업동향

인도, 이란 제재완화에 대비 이란 인프라 투자 서둘러

- 인도 정부는 오만만(the Gulf of Oman)에 위치한 이란 항만인 차마하르(Chabahar)항 개발을 위해 인도의 진달 인프라스트럭처(Jindal Infrastructures), 에사르(Essar), 사일(SAIL), 그리고 IRCON(Ircon International Limited) 등과 같은 인프라 개발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차바하르항은 1990년대 인도가 참여하여 건설한 항만으로 이 항만은 파키스탄을 지나 아프카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달 인프라스트럭처는 인도의 인프라 건설 및 운송업체, 에사르는 통신, 해운, 철강, 건설, 에너지 분야의 다각적인 사업을 하는 인도의 복합 기업, 사일은 인도의 국영철강업체, IRCON은 인도의 운송부문 인프라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임
- 이 프로젝트 제1단계는 차바하르항에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FTZ)을 설립하는 것이며, 향후 인도는 항만과 연계하는 철도 건설 계획도 수립할 것 이라고 밝혔음
 - 인도 정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FTZ 설립 프로젝트는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이나 민간 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며, 철도가 개설되면 차바하르항에서 아프카니스탄까지 연계되고, 인도와 중앙아시아 전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인도 해운부는 차바하르항 2개 선석을 인도가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이란 정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31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항만 처리 능력은 차바하르항은 현재 연간 250만 톤에서 8,600만 톤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이란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편 인도의 외교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 ; MEA)는 해운부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2016년 초 이란을 방문하기 이전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실무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음
 - 이란은 인도의 중요한 전략적 지역으로 평가되었는데, 인도는 차바하르항을 통해 이란과 아프카니스탄을 연계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임
- 이 같은 제2단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인도는 그 동안 인도와 아프카니스탄 간의 교역에 장애물이었던 파키스탄을 거치지 않아도 교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인도의 주이란 대사관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차바하르항 개발로 원유 및 기타 화물의 수입에 있어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음



자료 : http://www.worldportsource.com/shipping/ports/IRN_Port_of_Chabahar_3517.php, 2105.12.21검색.

자료 : <http://www.thehindubusinessline.com>, 2015.12.04 등 외신종합.

김태일 부연구위원
051-797-4613, ktizorro@kmi.re.kr



CMA CGM, 싱가포르 NOL 인수 추진 상황

- CMA CGM가 NOL을 주당 1.3 싱가포르달러에 인수하기로 주요 주주와 합의하였다며, 사전조건부 제안(Pre-Conditional Voluntary General Offer)을 지난 12월 7일 공개함
 - 1.3 싱가포르달러는 발표 직전일인 12월 4일의 종가인 1.225 싱가포르달러 대비 6.1% 높으며,
 - Unaffected share price¹⁾인 0.875 싱가포르달러 대비 48.6%가 높으며, 7월 16일 기준의 3개월 평균가격인 0.978 싱가포르달러 대비 32.9%가 높게 책정된 금액임
- CMA CGM과 NOL간 합의는 사전 조건부(Pre-conditional)인데, EU, 미국 및 중국 등에서 반독점 심사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이행되며²⁾, CMA CGM은 2016년 중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³⁾
 - 반독점 심사 통과 및 CMA CGM의 포기 등이 확정되면, CMA CGM은 즉시 공식제안 발표 (Formal Offer Announcement)를 공개해야 함 (D)
 - 이후 14일~21일 사이에 종합제안문서(Composite Offer Document)가 배포되어야 하며 (E=D+14~21일)
 - 이후 6일까지 NOL 주식의 66.84%를 보유한 테마섹 및 계열사⁴⁾는 주식을 제공해야 하며 (E+6일), 종합제안문서가 배포된 이후 28일 내에 거래가 완료되어야 함 (E+28일)
 - 그러나 주요 주주와 철회불가능 계약 (irrevocable undertaking)을 체결하였기에, 일정이 지체되더라도 CMA CGM은 2016년 12월 7일까지는 1.3 싱가포르달러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음
 - 다른 주식에 대해서 CMA CGM은 현재 시장에서 공개 매입을 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구매량, 단가 및 비율 등을 다음 영업일에 공개하고 있음
- CMA CGM에 의하면, 자사는 아시아-유럽, 아시아-지중해,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항로에서 강점이 있으며, NOL은 태평양 횡단, 아시아 내부, 인도아대륙 항로에서 각각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CMA CGM은 NOL 인수를 통해, 선대수용능력(fleet capacity)을 현재의 178만 TEU에서 233만 TEU로 증대하여, 시장점유율 8.8%를 11.5%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cma-cgm.com, 2015.12.7. / www.sgx.com, 2015.12.7.

송주미 전문연구원
051-797-4773, jmsong@kmi.re.kr

1) NOL의 매각 추진이 미디어에 알려진 2015년 7월 19일 이전의 마지막 완전거래일(last full trading day)인 2015년 7월 16일의 종가
 2) 싱가포르 증권위원회(Securities Industry Council)에서는 사전조건부 제안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
 3) 사전조건부 제안 공개일(Pre-Conditional Offer Announcement Date)로부터 12개월이 지나거나, 그리고 양사간의 중지합의일(Long-Stop Date)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전조건부 제안은 유효
 4) 발행주식 2,601,252,490주(금고주 1,726,717주는 제외된 수치) 중 1,738,676,330주를 보유



중국-유럽간 컨테이너 철도운송 증가세

- 철송으로 중국-유럽간 6,800마일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4~16일 정도로, 이는 해상운송에 비해서는 2배 빠르며, 비용은 항공운송의 절반에 불과함
 - 독일철도(Deutsche Bahn)에 의하면, 중국-유럽간 철송은 전자제품, 자동차관련 제조업체들에게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컴퓨터 부품, 엔진과 같은 제품들은 해상을 통해 운송될 경우 철송에 비해 운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적합하기 때문임
 - 현재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 서비스는 중국 중부의 정저우(Zhengzhou)와 창사(Changsha)뿐만 아니라 동북에 위치한 선양과 하얼빈과 같은 중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자료 : www.joc.com

- 현재 중국-유럽의 운송사들은 철도 편수를 늘리고 있으며, 철도가 지나는 국가들에서도 철도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 아시아에서 가장 큰 철도 허브인 청두(Chengdu)에서 시작되어 폴란드의 로지(Lodz)로 향하는 양방향(Two-way) 운송 서비스는 기존 주 2회에서 내년 1월부터는 일주일에 5회로 증가할 예정
 - 2013년 4월에 시작된 청두와 유럽을 잇는 고속철송서비스는 유럽으로는 주로 IT 제품과 자동차 부품, 의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반대방향으로는 식품 및 음료를 운송하고 있음
 - DHL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컨테이너도 철송에 투입하고 있는데, 청두에서 제품을 선적하여 유럽까지 해상운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천 마일 떨어진 상하이 항만까지 제품을 운반해야하기 때문임
 - 이외에도 다양한 철송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는데, 한 예로 독일철도(Deutsche Bahn)와 러시아 철도 간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된 Trans Eurasia Logistics는 올해 초 중국 중부의 우한과 함부르크 사이의 새로운 주간 정기운송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자료 : www.joc.com, 2015.12.15.

이홍원 연구원
051-797-4783, hongwon@kmi.re.kr



CMHI & 컨소시엄, 터키 Kumport 터미널 지분 인수

- China Merchants Holdings(CMHI), 중국 국부펀드(CIC)의 자회사인 CIC Capital, Cosco Pacific으로 구성된 컨소시엄(consortium)은 터키 Kumport 터미널 지분 65%를 Fina Holding社로부터 약 9억4천만 달러에 인수했음
 - Kumport 터미널 지분 35%는 오만(Oman)의 State General Reserve Fund가 소유하고 있음
 - CMHI와 Cosco Pacific은 각각 인수된 지분의 40%씩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며, CIC Capital은 20%를 보유하게 될 예정임
- Kumport 터미널은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터미널로서 터키 북서쪽 마르마다해(Marmara Sea) 지역의 Ambarli Port Zone에 위치하고 있음
 - Kumport 터미널의 6개 선석은 보스포루스 해협(Bosphorus Strait)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흑해를 통과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 2,180미터의 해안선과 최대 수심 16.5미터를 확보하고 있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음
 - 연간 약 184만 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대 350만 TEU까지 확장해서 처리 할 수 있음
- CMHI의 Li Jianhong 회장은 "Kumport 터미널 배후지역은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주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이번 인수는 CMHI의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강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향후 CMHI 사업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 : www.cmhi.com,hk, 2105.12.17검색.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12.14.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무르만스크 수산항社, Kupets社에 10억 26백만 루블에 매각

- 무르만스크 수산항은 2014-2016년에 걸쳐 민영화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무르만스크 수산항의 지분 100%에 입찰을 통해 매각됨
 - 입찰에는 4개의 입찰경쟁자가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Kupets사에게 10억 26백만 루블에 매각됨(약 미화1,453달러)
 - 2011년 연방자산청이 약 11억 5천만 루블에 수산항을 매각시킬 계획이었으나 유찰되었음
 - 하지만 이번 입찰을 통해 러시아 시장의 투자 감소 및 재정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에 낙찰됨
- Kupets사는 수산항을 인수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항만을 운영할 계획에 있음
 - Kupets사는 수년 동안 무르만스크 수산항의 주요 플레이어였으며 수산관련 도매업을 하는 기업임
 - 수산항 인수 및 운영과 함께 원유와 석탄과 같은 다른 화물의 전용터미널 건설도 준비하고 있음

자료 : www.portnews.ru, 2015.12.15.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세계 무역 증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TPP는 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상을 지니지만 회원국들이 모두 서명을 하게 될 경우, 세계 무역비중의 1/3을 넘어서는 역사상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는 것임
 - 더욱 획기적인 것은 향후 무역협상의 범위인데, TPP는 관세철폐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목적으로 전통적 무역협상의 대상인 수출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 및 해외투자 상품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이슈를 다룬다는 것임
- 또한, TPP는 “개방형” 협정으로서 회원국들의 참여를 장려한다는 특징이 있음
 - TPP가 향후 모든 무역협상에 있어 결정적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점에서는 회의적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고 함



- 더 나아가 TPP가 비준 후에도 많은 규정들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협정으로부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동 협정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기회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명 “승자와 패자”는 존재한다고 분석함
 - 승자는 농업분야, 제조업, 정보기술 산업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인 반면, 패자는 제약사, 담배 회사, 자동차 회사 등을 자국 내 무역 상품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자료 : <http://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5.10.21.

김민경 연구원
051-797-4777, mkkim421@kmi.re.kr



중소 ·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 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 · 센터 · 창고, 항만 · 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 · 무역 · 인프라 · 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 ·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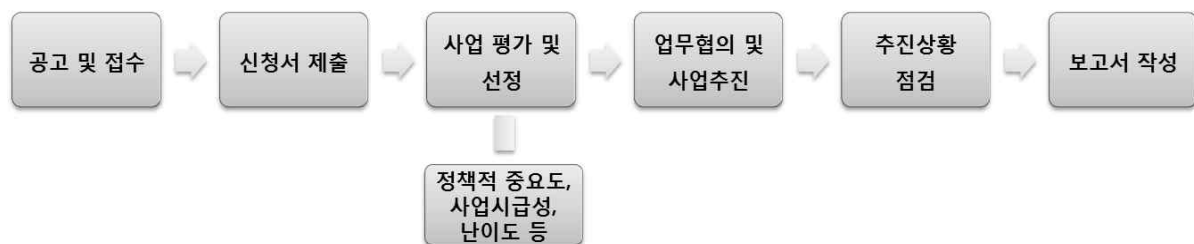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시급성·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별첨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 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지원요청 내용	국가/지역			
	관련 사업			
	문의사항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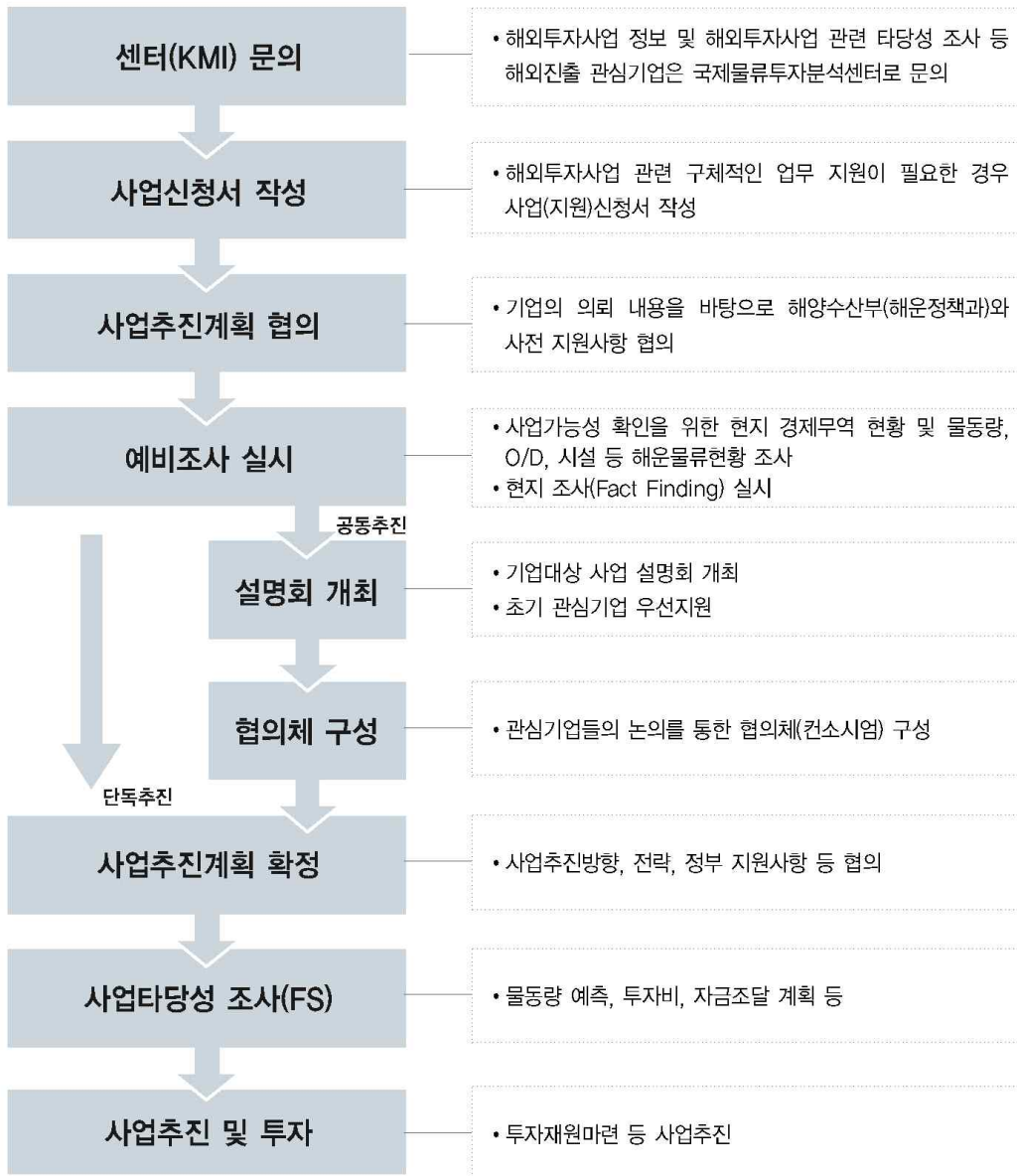
별첨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

업체 개요	기업명		업종	
	대표자		종업원수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전년도)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조사대상 사업개요	사업명			
	국가/지역			
※ 별첨 자료요청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의 목적 · 사업 세부내용 (대상지, 사업 분야, 사업규모, 사업방식 등) · 사업추진계획 · 현지시장 조사계획 · 기타 현안사항				
지원요청 내용	※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			
신청자	부서		Tel	
	직위		Fax	
	성명		E-mail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목 록	※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